

중기부, 전통시장·소상공인 부양에 4700억원 쏟아

내년도 전통시장·상점 활성화 사업 확정...예산 전년비 494억원↑

舊상권 부양하고 '청년 상인물' 설치...시장 현대화에 15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전통시장을 부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 847곳을 확정하고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낙후된 구(舊)도심 상권을 현대화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복합 상인물'을 지어 창업에 나선 청년 상인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과 '특성화 시장' 조성 사업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과 화재예방 사업에도 1550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의 '맛'을 살린 특성화시장 사업에도 3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020년 전통시장·상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1.7%(494억원) 오른 4706억원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이번 예산에서 빠졌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라 △상권 르네상스 △청년상인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등 전국 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을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누리상권권도 지난해보다 5000억원 많은 2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포진한 지역 중에서 낙후된 구도심 13곳을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하고 '상권

활성화' 예산 113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형 복합 청년물' 3곳을 설립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에도 13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복합 청년물은 인근 상권을 찾는 주요 소비자의 연령과 수요에 맞춰 콘셉트와 입주 상점이 구성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에 대응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상인교육'에도 정부 예산이 쓰인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141곳을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 특색을 연계하는 '특성화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292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지역의 정체성을 투영시켜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고객을 다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을 돕는 '시장경쟁력 바꾸기 지원사업' (360여곳)에도 141억원이 투입된다. 바꾸쳐를 받은 상인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경영현대화사업을 선택·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쇼핑환경 향상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 1424억원(96곳)을 비롯해 △노후 전선 정비 40곳(60억원) △화재자동알림시설 2만3000여 점포(132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전통시장 내 불거리와 즐길거리 등

'시장 1특색'을 발굴하고 전통시장 투어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양홍(1시간 방송에 100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중국의 유투버)과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6억원 초과 '고가 전세' 거래 비중, 2011년 이후 첫 감소

2018년 3.1%에서 2019년 2.7%로 줄어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요 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올해 6억원 초과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올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전국 주택의 가격대별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6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2.7%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1%)보다 0.4%포인트

(P) 감소한 수준이다. 금액대별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1%, 9억원 초과는 0.6%를 기록해 1년 전보다 각각 0.3%P, 0.1%P 줄었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 2011년 정부의 실거래 가격 공개 이후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 비중은 2011년 0.5%에

서 2018년 3.1%까지 확대했다.

6억원 초과 고가 주택 전세시장은 아파트 비중이 97~9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공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급 빌라를 제외하면 고가 주택이 드물다. 단독다가구 역시 원룸 형태의 월세 거래가 주를 이루 전세 거래 비중 자체가 적다.

지역별로 6억원 초과 주택의 전세 거래는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졌다. 다만 거래 비중은 2011년 98.9%에서 올해 85.7%까지 줄었고, 지방은 같은 기간 1%에서 13%까지 확대했다.

직방은 고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서울 집값의 상승과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합병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주택 전세 거래는 서울 강남권 등 기존 고가 전세시장 외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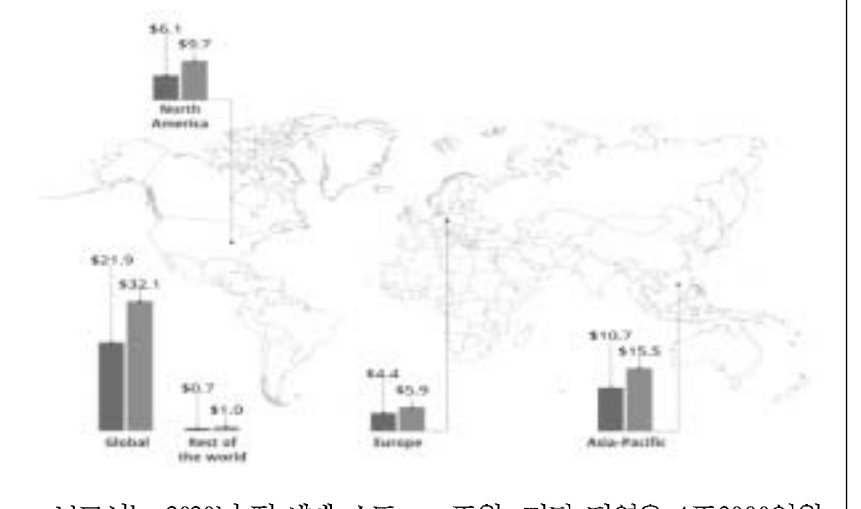
"내년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량, 산업용 로봇 넘을 것"

전문 서비스 로봇의 판매량이 2020년 산업용 로봇의 판매량을 넘어, 2021년에는 판매수익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0 글로벌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전문 서비스 로봇의 판매수익을 1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산업용 로봇은 1970년대부터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 등 제조산업에서 사용된 로봇이고, 10년 전부터 보급된 전문 서비스 로봇은 바퀴가 장착돼 이동이 용이한 게 특징으로 유통업·호텔·헬스케어 등의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봇이다.

보고서는 "2020년 기업용 판매가 예상되는 100만대의 로봇 중 절반 이상이 전문 서비스 로봇이 될 것"이라며 "판매수익은 2019년 대비 30%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전 세계 스트리밍(인터넷 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 내 중간광고 비디오 서비스의 매출이 총 3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련 매출이 18조원으로 전 세계 매출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지역은 11조원, 유럽 지역은 7

조원, 기타 지역은 1조2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하드웨어·콘텐츠·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멀티플라이어 시장(모바일 광고·애플리케이션·액세서리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장)의 매출은 2020년 532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까지 매년 5~10%씩 성장이 예상된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